

2018년 12월 14일, 제주시 연동 고응상 씨 댁, 이효순 조사.

고응상(남, 1949년생, 제주시 연동)

- 제주시 삼도동에서 태어났으며 70년째 제주시에서 거주하고 있다.

- 줄거리: 산방산 앞의 용머리라는 바위에 칼자국과 해안 바위의 붉은색은 고종달이 제주도에 큰 인물이 나오지 못하게 혈을 끊으려고 용의 목 부분을 베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.

[조사자] 옛말 더 알아줍서.

[제보자] 제주도에 옛말에 유명한 사람이 난다고 헛어. 고종달이가 보니까 산방산 앞에 용모루가 길게 뻗었어. 보니까 용같이 진짜 큰 커다란 인물이 날 거 같으니까 그 혈을 끊으려고 허는데 도저히. 혈이 원체 많으니까 도저히 끊을 수 없어서 칼로 용모루 목 부분을 베었는데, 지금도 자국이 칼자국같이 뚜렷하게 나 있는데, 피가 엄청나게 났어.

그 용모루가 더 밑으로 자라던 용모루가 고종달이가 칼로 잘라서 피가 나면서 그 다음부터 멈춰서 제주도가 지금의 용모루가 됐는데, 지금도 거기 가면 칼로 자른 자국이 정확하게 있다.

[조사자] 산방산 앞에마씨?

[제보자] 용모루 거기 아직도 표시가 되어 있고 피가 많이 나서 용모루 해안 거기가 붉은 색이 들었다고 해. 그쪽에 갔을 때 그 말을 들었어.

- 핵심어: 용모루(용마루), 산방산, 용, 혈, 인물, 고종달, 칼, 해안, 피